

## “위선의 탈 벗기니 추악한 삼성 얼굴 드러났다”

### 삼성 에버랜드 어용노조 설립 무효 판결... “너무 늦은 너무 당연한 판결”

금속노조가 삼성그룹 에버랜드 기업노조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 설립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금속노조는 “삼성이 10년 동안 어용노조를 이용해 금속노조 교섭권을 불법으로 빼앗기 위한 노조파괴 전략을 시행했음을 최초로 확인한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8월 26일 ‘에버랜드 기업노조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설립돼 헌법 및 노조법상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설립이 무효임을 확인했다’라며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단 근거로 ▲에버랜드 기업노조 1·2기 위원장 선출과 인수인계가 사용자 주도로 이루어진 사실 ▲삼성이 기업노조 2기 간부들과 금속노조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금속노조보다 더 많은 수의 조합원을 유지하도록 관리 ▲현재까지 사용자가 개입해 2기 위원장이 직을 유지하고 있는 사실 등을 제시했다.

박원우 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장은 “이번 판결로 구시대 ‘무노조 경영’을 유지하며 ‘준법 경영’을 하겠다는 위선의 탈을 벗기니 삼성의 추악한 얼굴이 드러났다”라며

“법을 무시하며 노동자를 기만하는 삼성의 오만을 뜯어고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박원우 지회장은 “노조파괴와 어용노조 설립 등 낡은 도구로 민주노조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라면서 “어려운 상황과 여건에서 투쟁하는 여러 복수노조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이번 판결이 용기와 힘이 되었으면 한다”라는 바람을 전했다.

#### “기업노조, 현재까지 사용자 개입”

소송을 담당한 금속노조 법률원 박다혜 변호사는 “유성기업에 이어 에버랜드에서 어용노조 설립 무효를 확인받았다”라며 “삼성의 노조파괴 전략이 세상에 드러난 세월을 생각하면 한참 늦은 판결이면서 동시에 너무나 당연한 판단이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박다혜 변호사는 “삼성은 즉각 어용노조를 해산하고, 2021년 단체교섭과 이전 노동조건 등에 대해서도 진짜 노조인 금속노조와 교섭해야 한다”라면서 “노동부는 이미 법원이 여러 번 확인하고 인정한 삼성의 무노조 전략을 제대로 인정하고, 어용노조 설립신고 직권 취소와

삼성그룹 노사전략 점검·감독 책임을 이행하라”라고 촉구했다.

삼성그룹은 2011년 그룹 미래전략실이 주도로 에버랜드에서 조직적인 노조파괴 범죄와 민주노조 와해를 시작했다.

어용 기업노조 설립은 삼성의 노조파괴 시나리오 중 하나였다. 어용노조는 설립 일주일 만에 아홉 쪽에 불과한 ‘एं터리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 단협은 지난 10년 동안 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의 교섭을 막는 걸림돌이었다.

2018년 삼성 노조 와해 사건 검찰 조사와 이어진 재판으로 에버랜드 기업노조가 어용노조라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삼성그룹은 사과를 비롯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 삼성은 심지어 2020년 5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노조파괴 범죄 사과와 무노조 경영 폐기를 선언한 후에도 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 교섭 무력화 시도를 계속했다.

삼성그룹의 노조파괴에 굴하지 않은 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는 2021년 교섭권을 되찾아 교섭대표노조가 됐다. 삼성지회는 현재 삼성물산 건설, 리조트, 패션, 상사 등 네 개 사업 부문의 단체교섭을 벌이고 있다.

# “현대차그룹 불법 중단하고, 직접고용 이행하라”

## 현대차그룹 지부·지회 대표자 현대제철 비정규직 투쟁 지지·연대 선언

현대자동차 자본이 판결과 정부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뚫고, 현대제철 불법파견 사내하청노동자를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하려는 꾀수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8월 23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통제센터 점거 농성으로 맞서고 있다.

금속노조는 8월 24일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현대제철 불법파견 해결 촉구와 자회사 전환 규탄 현대자동차그룹 지부·지회 대표자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 현대제철 정규직·비정규직지회와 현대자동차지부, 기아자동차지부 등이 함께했다.

금속노조는 기자회견에서 “현대차 자본이 판결과 노동부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무시하면서, 현대제철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해 불법파견 처벌을 회피하고 민주노조를 파괴하겠다는 계획을 시행하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금속노조와 순천·당진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노동자 차별과 착취를 해소하고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를 위해 투쟁해왔다.

현대제철 순천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심까지 불법파견이 인정돼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국가인권위와 고용노동부도 올해 초에 불법파견 노동자를 원청인 현대제철이 직접 고용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금속노조는 “현대제철만의 문제가 아니다. 현대자동차는 그룹 내 거의 모든 계열사에서 상시·불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지난 7월에 현대위아 평택1·2공장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소송 7년 만에 대법원에서 원청 현대위아의 불법파견을 확인하는 판결을 받았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여는 발언에서 “현대차 자본은 대법 판결을 앞둔 상태에서 교섭이나 논의 없이 9월 1일 자회사를 띄운다며 조합원들에게 부제소 동의서를 받기 시작했다”라며 “자회사 설립이 몇몇하고 정당하다면 왜 부제소 동의서를 받는가? 스스로 불법을 인정하는 행위다”라고 꼬집었다.

김호규 위원장은 “현대제철은 당장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직접고용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금속노조의 요구는 분명하다. 원청 사용자 현대차 자본과 비정규직지회가 대화하자는 것이다”라고 현대차 자본에 교섭을 촉구했다.

이상수 노조 현대자동차지부장은 “현대자동차지부는 10년 전에 불법파견 관련 특별교섭으로 9,800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험이 있다”라면서 “현대차 자본은 법원 판결대로 반드시 정규직으로 직접고용에 나서야 한다. 현대차지부가 지난 특별교섭 경험을 살려 함께하겠다”라고 밝혔다.

최범규 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부지회장은 “법치 국가 대한민국에서 불법을 저지르면 처벌받는 것이 당연하다.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반성하며 대가를 치르는 것이 합당하다. 그런데 현대제철은 문제를 바로잡기는커녕 은폐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최범규 부지회장은 “자회사는 가짜 정규직이다. 현대제철의 불법파견 은폐를 두고 볼 수 없다. 우리는 민주노조 깃발 아래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것이다”라며 “현대제철 자회사 꾀수에 맞서 끝까지 투쟁해서 반드시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쟁취하겠다”라고 힘주어 말했다.